## 지상백고좌

조계종 가사 명장 무상 스님

# "웃는 얼굴로 응대하세요…복 짓는 일입니다"

12면에 이어

가사를 '분소의'라 부르는 것은 수행자의 하심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복전의'라고 하는 것은 불자들에게는 복을 짓는 터전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면서 무상 스님은 〈화엄경〉에 나오는 가사공덕 한 토막을 들려주었다.

커다란 날개를 지닌 금시조는 용의 새끼를 먹고 산다. 용의 권속이 점점 줄어드니 임금용이 부처님께 하소연을 하였다. "금시조가 우리 용들을 다 먹어치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들 가사를 얻어다가 3치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모두 몸에 붙이라"고 하였다. 용은 스님들의 가사를 얻어다가 모든 권속들에게 붙여놓았다.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으려고 보니 가사 입은 스님들뿐이어서 잡아먹지 못하였다.

"용들의 목숨을 구할 정도로 가사의 위신력은 굉장하네요"라고 말했더니 무상 스님은 "가사를 수하고 있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고 하지만, 출가자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그대로 지옥행이니 우리 수행자에게는 무서운 옷"이라고 말했다.

'가사를 존중하면 오덕(五德)이 있다'는 말이 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자비심을 길러주고 구도심을 심어주는 옷이요, 치열하게 수행하는 출가자들의 옷이기에 사견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하는 옷이요, 출가 수행자들에겐 인욕의 옷이요, 계율의 옷이다.

가사에 새겨진 문양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쭈었다.

"가사에 새겨진 것은 한국의 논두렁이지요. 부처님 당시의 가사에 대해 기록으로 남은 것은 없고 논두렁이 새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 전해져 오는 말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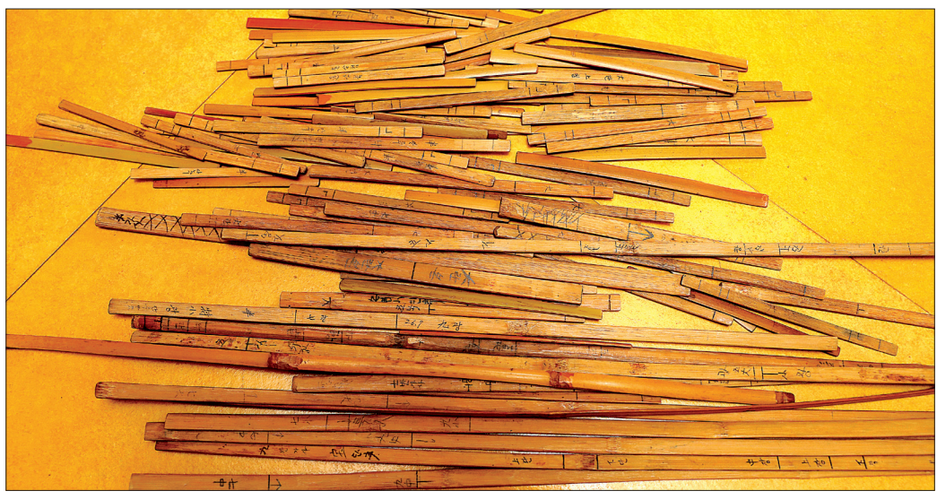
극락세계에 9품이 있듯이 가사에도 9품이 있다. 9조, 11조, 13조 가사는 하품이요, 15조, 17조, 19조는 중품이요, 21조, 23조, 25조는 상품이다. 가사에 극락세계를 새겨 넣은 것을 보면 출가자에게 있어서 가사의 의미가 얼마나 지중한지 알 수 있다.

손으로 한땀한땀 바느질하여 가사를 만들 때는 한 벌 완성하는데 이십 일이 넘게 걸렸다. 가사는 조각과 조각이 만나는 조염이 중요하여, 여기서 바느질 한 뜸만 어긋나도 전체가 틀어져서 안된다고 한다. 바느질하는 그 마음이 삼매에 들어야 할 정도로 일념으로 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가사의 모서리에는 천왕문첩이 들어가고, 하품에 속하는 9조, 11조, 13조 가사는 기다란 조각 2개랑 짧은 것 1개가 이어져 1조가 된다. 9조 가사면 총 아홉 줄이 된다. 중품, 상품으로 갈수록 긴 것이 하나씩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바느질하는 수공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가사의 마지막엔 연봉을 달아 고리를 만든다.



조계종 가사 명장 무상 스님이 합장하고 부처님을 예경하고 있다.

**'無財七施'가 복 짓는 데는 제일 좋아**
**"말 한 마디로 상대 기쁘게 할 수 있어**
**버스 자리 양보하는 것으로 보시 가능**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면 저절로 복 지어"**



무상 스님이 가사 지을 때 사용한 자.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무상 스님은 2020년 법주사 선희궁에서 소장하고 있던 '가사 전시회'를 열었다. 스님께 그 취지를 여쭈었더니 "가사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었고, 가사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평생 가사를 만졌으니 한 번은 열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무문관〉에는 가사와 관련된 공안이 하나 있다. 〈무문관〉 16칙은 종성칠조(鐘聲七條)이다. 종소리에 칠조 가사를 입다는 공안이다.

어느 날 운문 화상이 말했다. "세계는 이처럼 넓은데, 무엇 때문에 종이 울리면 칠조(七條)의 가사를 입는 것인가?"

종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뜻하는데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칠조 가사는 출가수행자의 옷이자 수행의 상징이다. 분별을 끊고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라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종소리와 칠조가사를 연결하면, 세상의 소리와 일에 흔들리지 말고 수행자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무문 선사는 이 공안에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소리나 형상을 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마디 일렀다. 수행하는 재가불자들도 새겨들을 공안이다.

무상 스님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여쭈었더니 "늙은이가 무슨 계획이 있겠느냐"고 하면서도 "내년에 중국의 계족산에 있는 미륵도량에 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갈 20명의 스님들께 가사 한 벌씩 드리고, 중국 가서 가사를 만들어 중국 계족산의 미륵도량에 있는 스님들 모두에게 가사 한 벌을 공양할 계획이란다. 중국의 사찰에서 한국식으로 의식을 올리려고 한다는 스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무상 스님은 출세간을 막론하고 말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도들에겐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남을 대하라고 하면서, 스님들이 보살들에게 하대하는 말버릇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노보살님이 남편과 자식,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앞세우고 아는 스님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반말을 한다면 가족 앞에서 노보살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님들도 이젠 신도들에게 경어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힘줘 말했다.

본지 독자들을 위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자, 무상 스님은 〈잡보장경〉에 나오는 "무재칠시(無財七施)가 복 짓는 데는 제일 좋다"고 말했다.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를 '무재칠시'라고 한다.

일곱 가지 보시 중 첫째가 '화안시(花顔施)'라 하여, 부드럽고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웃는 얼굴로 대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것이다. 둘째는 언시(言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도 보시이다. 셋째는 심시(心施)라 하여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말 한 마디로 상대를 기쁘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눈빛으로, 자리를 양보하는 것으로도 보시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복도 짓고 좋겠지요."

무상 스님은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일념으로 하는 것이 공부라고 하셨다. 스님은 가사불사를 이끌 때도 "정진하는 마음으로, 화두 드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불자들에게 일렀단다. 그러면서 "집에서 밥을 짓더라도 가족들의 건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면 밥을 짓는 나도 행복하고 밥을 먹는 가족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제록〉에서 가장 유명한 일구(一句)는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공이 되라'는 경구는 '정진하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살라'는 무상 스님의 가르침과 맞닿는다. 가사를 짓든, 참선을 하든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문윤정** / 작가


스님 건강, 편백나무로 지킨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연력강화
- 근육통와환,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히노끼(편백)나무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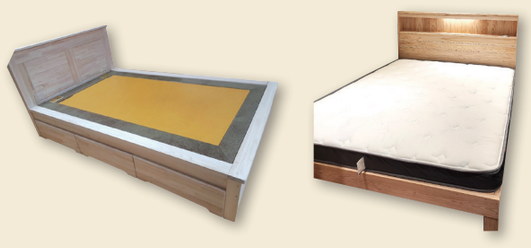
이노 끼(편백)나무 열매가 있. 줄기, 뿌리중에서도 피톤치드 향이 가장 많고
열매를 구애 잘 건조시킨 후 집안 곳곳에 방양제모 사용 가능하며 아로마 테라피로 스트레스 완화.
피부질환 개선, 달서,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히노끼(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당의 욕조로 사용하면 좋고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색상, 침대, 쌀통, 발판, 장난감,
그리고 메계같은 경우는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되는데 그것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일반 나무보다 5.5배 가량 많아 편백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다고 할 정도이며,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무가 바로 편백나무로서 항균, 탈취, 공기정화의 효능이 있다.




편백침대



편백서랍장



편백찜기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